

●유용수 산문집 '흔들리는 모든 것은 외롭다'

“익숙한 길에서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그냥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웬지 지루하고 숲도 예전처럼 싱그럽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바람도 예전처럼 상쾌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알 수 없는 지루함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자 오늘은 시끄러운 숲에 있습니다.//노을 물은 저녁 바람이 숲을 채웠습니다. 가로등 비추는 곳에는 안개가 가득합니다. 낮에 느낄 수 없는 축축한 숲 냄새를 맡습니다. 어둠에서 오는 긴장감이 좋습니다. 낯익은 땀구슬은 미세한 소리에 머리 끝이 쭈뼛거립니다. 긴장이 아니라 어둠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어둠 앞에서는 장애물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나 조금만 적응하면 사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익숙한 것도 새로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은 외롭다 중



수많은 꽃·나무가 들려주는 자연 이야기

생태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자연과의 교감 장흥 억불산 배경...역사의식 등도 담아내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 유용수 작가가 두 번째 산문집 '흔들리는 모든 것은 외롭다' (시와사평)를 펴냈다. 이 책에는 유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생태학적 상상력이 울곧게 투사되었다. 작품의 주된 배경인 장흥의 억불산은 작가가 세상에 짜든 속을 행구고자 찾은 공간이다. 작가는 억불산에서 만나는 수많은 꽃과 나무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인식한다. 실상은 작가의 자의식이 꽃과 나무와 자연어로 교감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작가는 꽃과 나무의 생김새와 빛깔, 그리고 그것들이 지닌 생태적 특성들을 빌려 이야기하는데, 꽃과 나무가 지닌 고유한 진실들을 작가가 유추하고 발견함으로써 메시지가 생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살아가야 할 도반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억불산이라는 장소가 지닌 생태적 특성과 역사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생태학적 상상력을 보여주며, 제4부는 주로 역사의식을 담아낸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전 지구를 개발 대상으로 삼아 재획적 가치로 인식해 왔다. 더불어 인간존재마저 기계의 부품 정도로 생각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불화는 지구 최대의 상치인 생태환경의 문제를 일으켜 현재 지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생태환경의 재앙은 결과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문제의 실천 덕목으로서 거대담론적인 측면의 발언을 지양하고, 억

불산 산행을 통해 자신의 성찰과 통찰을 펴낸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작은 꽃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고 작가는 경이와 경외의 마음으로 인간이 잃어버리거나, 지나지 못한 미덕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책은 성찰과 정신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어 언어미학적 관점에서도 선명한 작가의 의식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유용수(사진) 작가는 한국문인협회, 전남문인협회 등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여름호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통권11호)가 발간됐다. 한희원 작가의 그림 '푸른 나무'로 표지를 장식한 이번 여름호는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가 조대신문에 발표한 단행의 시 '희망'으로 창을 연다. 특집기획에는 '민선 8기 1년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전교필향토사전책방 이목구심서 대표의 '변화

는 환경과 변하지 않는 광주 문화' ▲염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의 '예술로 밥 먹고 살기' ▲최성혁 광주청년센터 청년응원위원의 '민선 8기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문화도시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박경섭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의 '도시와 건축, 제대로 가고 있나?' ▲정진삼 (사)광주장애인 문화협회의 '민선 8기 1년, 문화협치에 대한 단상' 등을 담았다.



햇피플 인터뷰에서는 정찬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을 만나 민예총이 결성된 배경과 민족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단체의 활동,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들어왔다. 이어 정년문화인에는 김단비 해금예술가를 통해 단순한 연주보다 예술가로 발전하기 위한 가치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연재코너에서는 김상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고문의 '렝그리와 부르한2'와 신웅주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의 '건축자산과 근대화유산'을, 문화공간_진단에서는 기우식 참여자치인 사무처장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에 대해 진단해본다. 또한 문화공간_리뷰&프리뷰에서는 주홍 총감독이 인문예술축제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를 소개했으며 문화공간_문화특에서는 김정희 시인의 철학 카페 활동과 현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활동가의 지방의 문화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했다. 2005년 창간된 문화담론지 '창'은 호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세대의 시각과 다채로운 이야기로 지면을 채워가고 있다. 지역 대표 문화전문매체로서 지역 문화소통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창'은 공공기관 및 문화유관 기관, 시민들에게 배포된다. 재단 후원회원이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문화통Plus 여름호

이번 호는 '각화동 문화대학교 천정에 세계적인 천정화를 그린다면'이라는 문화제언으로 문을 연다. 정기 시리즈 '전남의 마을'에서는 성산 시단의 시종으로 불리는 임영령과 을사사화 주역 임백령, 광주·나주목사를 지낸 임구령 3형제 등 선산 임씨의 흔적을 찾아 해남과 영암, 무안 몽탄 집성촌을 취재했다. 예술인 코너에서는 한진옥류 호남검무 명인 김자연 선생의 60년 무용 인생을 다뤘으며, 빛고를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박문옥 씨의 삶과 노래 이야기가 실렸다. 전라도법상 코너에서는 장흥 회진 포구 청송식당의 '된장뒤편'을 소개하며, 문순태 소설가의 시 '흥어와 어머니', 담양 복합문화공간 '소아르페' 등 읽을거리도 풍부하다. /광주문화발전소



▲베르베르 씨, 오늘은 뭘 쓰세요? = 베르나르 베르베르 글, 전미연 옮김

이 책은 한계를 모르는 상상력으로 방대한 작품 세계를 창조해 온 베르베르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를 유쾌한 필자로 그려낸 책이다. 그가 들려주는 다채로운 여성 속 인물과 사건은 모두 그의 소설과 자연스럽게 포개진다. 이 책은 지금의 그를 만든 지난날의 내밀한 기록이자 '베르베르 월드'를 속속들이 보여 주는 친절한 안내서이며, 영감의 원천과 창작 과정을 숨김없이 공유하는 참고서이기도 하다. /열린책들·1만8천800원



▲미안해 또 미안해 = 이자벨라 팔리아 저자, 파울로 프로이예티 그림, 이정자 옮김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을 때, 말없이 건네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림책 '미안해 또 미안해'가 출간됐다. 2021년 '상자 속 친구'를 시작으로 이야기공간은 이 책의 그림 작가 파울로 프로이예티의 작품을 해마다 1권씩 출간해 왔다. '마음치유'를 모토로 삼고 있는 이야기공간과 결이 맞는 따뜻한 그림체가 이번에도 우리를 위로한다. 1차 타깃 독자인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사과'를 가르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알아야 할 '용서'에 대한 훌륭한 조언이 담겨 있다. /이야기공간·1만7천800원



▲모래는 뭐래 = 정끝별 저자

올해 등단 35년을 맞이한 정끝별 저자의 일곱번째 시집 '모래는 뭐래'가 발간됐다. 시인은 경쾌한 어조와 그윽한 서정이 결합된 작품으로 삶의 비밀한 일상과 가족·여성·사회·생태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유의 유머와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목소리로 삶의 비애와 '도저히 고도 낭창낭창한 슬픔'을 감싸 안는 시인들이 공감을 자아내고, 치밀하게 구성된 에너그램 형식의 시편들은 시 읽기의 깊은 맛을 음미하게 만든다. 책 말미에 실린 황인찬 시인의 해설에서는 단정하면서도 개성적인 언어로 시집에 대한 곡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창비·1만1천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EAM KOREA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자재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